소정 변관식의 3대 걸작으로 알려진 '외금강옥류천'이 진품이 아니라고 밝힌 소장 평론가 최광진씨. 그는 이번 사태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국내 미술계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김진욱기자·kjw4677@〉

이 주일의 서울갤러리전시

◇**배중근 전**:10월3일까지 제1전시실. 설악산 북한산 홍도 등 우리나라의 수려한 풍광을 작가 특유의 솔직하면서도 힘찬 필치로 캔버스에 담았다. (02)721-5968.

◇**고재휴 전**:10월3일까지 제2전시실. 27년 동안 절필했다가 지난 90년 다시 붓을 든 작가가 산수를 서정성 넘치는 수묵담채로 그려냈다. (02)721-5969.

편집 성희중기자 hjs@

"보수 권위 침묵은 가라"

미술계 뒤흔든 '젊은 피'

"옥류도는 작가 혼 빠진 가짜"주장
눈치보는 평론가들에 따끔한 비판
"미술계 풍토 바로잡는 계기"평가

최광진씨—.

올해 37세. 국내 최초로 홍익대 대학원 미술학 비평 부문 박사과정에 등록, 1호 미술비평박사를 꿈꾸는 촉망받는 소장 평론가다.

굴지의 미술관인 호암미술관에서 지난 3월 퇴직할 때까지 7년간 근무, 학예연구원 겸 평론가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95년 직접 기획한 '천경자전' 때는 유료관중 10만여명을 돌파,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더분한 인상과 달리 치밀한 성격과 뜨거운 학구열, 목적을 향한 쉼없는 도전정신. 야심만만한 평론가로서의 자질을 갖춰 일찌감치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지난 8월 푹푹찌는 무더위만큼이나 충격적인 폭탄선언을 했다.

산수화의 대가 소정 변관식의 3대 걸작으로 알려진 '외금강옥류천'이 소정의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 올 하반기 미술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소정의 제자 조순자씨의 엇갈린 증언과 관계없이 조씨의 국전 입선작으로 밝혀진 점, 파렴치한 자들의 장난으로 낙관이 변조된 점, 설령 소정이 제자 조씨를 위해 전부 다 그려준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때묻지 않은 '혼'의 투입이 절대적인 순수미술의 관점상 최소한 소정의 명품일 수는 없다는 시각 등…. 미술계가 진위논쟁의 승부는 끝났다고 보는 이유다.

하늘 같은 선배들의 눈치보기에 만 급급한 국내 미술계의 보수적이고도 권위적인 분위기. 최씨 말마따나 "명론인생과 목숨을 건" 자세가 아니고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위품 주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이번 주장이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과 함께 '기라성 같은 선배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잘못된 평론계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이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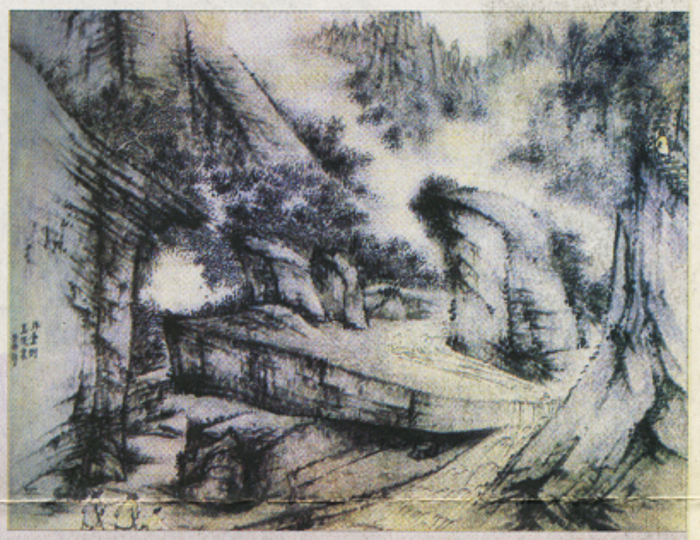
군산고를 나온 최씨는 원래 원광대 공대에 입학한 공학도였다. 그러나 끈기와 집착 등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그는 미련없이 2학년때 중퇴, 6년간의 미술실기공부를 한뒤 88학번으로 홍익대 미대에 입학했다.

평론의 핵심을 "작품의 진위구분"이라고 잘라 말하는 최씨. 그런 점에서 이번 옥류도사태에 대해 대다수 평론가들이 눈치보기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의 최일선 당사자들은 미술계, 특히 평론가들이다. 진위논쟁 자체를 강건너 불보듯 하는 입장은 미술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안목이 진실을 뒤엎을 수는 없다." "옥류도의 진품여부는 후학들의 작가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나서기 싫어하는 최씨가 굳이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번 폭탄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다.

〈박인권기자·pistol@〉



올 하반기 미술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의 '외금강옥류천'.

"옥류도는 틀림없는 진품"

전남대 이태호교수 주장

"구도 - 마무리했다면 진품 인정해야"
낙관변조 무방 논리… 설득력 잃어

올 하반기 미술계 최대의 이슈로 등장,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소정 변관식의 '외금강옥류천'의 진위논쟁. 이 그림이 소정의 진품일 뿐 아니라 소정의 3대 명품이라고 주장해온 평론가 이태호씨(47 전남대교수).

그는 위품이라고 충격선언을 한 최광진씨의 주장을 반박, "틀림없는 소정의 명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월간 미술세계 9월호에 기고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옥류도는 ▲소정이 그렸기 때문에 소정 그림인 것은 당연하고 ▲소정과 조씨의 합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정이 구도잡기와 마무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 소정 그림으로 봐도 무방하며 ▲미술사적 의미와 가치로 보더라도 소정 그림으로 판단하는게 타당할 뿐 아니라 ▲제자의 국전출품용인 것을 알면서도 손수 그림을 그려준 점은 역시 괴팍하고 대쪽 같은 '소정다운 별난 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그러나 소정이 다 그린 것이라고 치더라도 순수미술의 필수불가결한 판단척도인 작가의 순수한 혼과 정신이 빠졌다는 점에서 소정의 진품이나 명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세에 부딪히고 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스승과 제자의 합작품을 필요에 따라 스승의 작품으로 본다면 세계 미술사를 모두 새롭게 써야 한다는 점, 원 작가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낙관을 변조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논리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뜻있는 미술계 관계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토론문화의 부재와 자기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전적인 비판의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사태를 통해 또한번 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박인권기자〉